

與, 전대 신경전...주호영 "1말2초" vs 김기현 "최대한 빨리"

與전당대회 개최 놓고 '동상이몽'
 주호영 "정기국회 끝나고 1말2초에"
 김기현 "해 넘어가면 국정동력 상실"
 안철수 "국감·정기국회 치르고 난 후"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1말2초'로 언급했다. 그러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당 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당권 주자들의 속내는 제각각이다. 당권 주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이 복잡한 셈이다.

주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등을 이유로 들면서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 '1월 말·2월 초'를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오전 KBS '일요 진단 라이브'에 나와 "이번 비대위는 대략 정기국회

가 끝나고 나서 전대를 시작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경인 12월경에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1월 말이나 2월경에 아마 새 지도부가 뽑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비상상황을 해를 넘기면서까지 해소시키지 못해 새해 벽두 새 출발 때에도 여전히 비정상 상태를 지속한다면 자칫 국정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당 비상 상황 수습의 시급성을 언급하면서 전대 개최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그는 "급속같은 집권 초기의 6개월은 나머지 4년 6개월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당의 내부 문제를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수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의 비상 상황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정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이자 소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도 나와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는 말했고 여당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을 리가 없으니 정상적인 체제를 구축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정기국회 종료 후 전당대회 개최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12일 KBS 라디오에서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입장을 내지는 않으면서 "국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본청 국민의힘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비대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민, 정양석, 엄태영 비대위원, 권 원내대표, 주 비대위원장, 이소희 비대위원, 성일중 정책위의장, 전주해, 주기환 비대위원.

정감사와 정기국회를 제대로 잘 치르고 그걸 통해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겠다는 확신을 국민들께 심어주고 전당대회는 그다음"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전당대회 개최를 놓고 여러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는 24일 당내 공부 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에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초청해 5차 공부모임을 가진다.

안 의원은 오는 22일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부패 방지를 위한 공법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환기자

이재명 vs 박용진, 전남 합동 연설서도 '사당화' 공방

李 "결코 사적 이익·계파 위해 권한남용 없을 것"
 朴 "악성 팬덤·사당화 혼란·계파독식 등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21일 전남 합동 연설회에서 사당화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전남 강진제1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배포한 연설문과 다르

게 즉흥 연설을 하면서 제기되는 사당화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이 후보는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겠다. 결코 사적이익이나 특정 계파를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을 인정하는 걸 넘어 역할 분담을 통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모으겠다"며 "통합을 통해 확실히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박용진이 만들고자 하는 민주당의 미래에는 악성 팬덤이 판치고 셀프공천과 사당화 논란으로 혼란해 하며 정치홀리건, 좌표부대들이 당내 다양한 이견을 억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의 들러리로 전락해 당내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고 당권을 온라인 거수기로 만들어 지도자가 당원들의 투표 뒤에 숨는 무책임한 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욱이 계파독식 논란은 없을 것이다. 한쪽 계파가 대표도, 최고위원도 다 먹고, 당헌-당령도 마음대로 뒤집는 일, 그래서 핍먹고 알먹고 국물까지 싹 다 독식한다는 비판을 들으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위기 한가운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

김종인 "尹-李, 양쪽 다 책임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상황과 관련 "책임이 양쪽에 다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정치력의 부재다. 리더는 참고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보였을 때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는 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20일 저녁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선거 때 같이 했으면 이전 대표를 풀어주는 아량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오늘과 같은 묘한 현상이 생겨난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젊은 혈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피력하지만 아직 정치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큰 담을 이끌어갈 대표의 역량은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제하는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표는 남의 얘기에 대해 인내하고 참지를 못한다. 누가 뭐라 하면

반드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서 문제가 있다. (이 전 대표가) 참고 견뎌야만 오늘날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100일의 평가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신도 그렇고 참모도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안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니까 시정도 할 수 없다. 지금 문제를 알아도 시정하기 어려운데 문제 자체를 잘못하고 있으니 처방안이 나올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밖의 사정을 욕을 먹더라도 전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용기 있는 참모가 있는지 걱정"이라고 했다.

한편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비대위 자체가 무슨 큰 할 일이 있겠는 가 생각이 든다"면서 "비대위를 만들게 아니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당대회를 해서 정상적인 체제를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다. 왜 비대위 체제로 갔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쓴소리했다.

정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